

KB 금융그룹

국민의 평생
금융파트너

세상을 바꾸는 금융

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

“은행은 저에게 대출상담 과정에서
인망함과 좌절감을 가져다 준 장소였습니다.

그런데 다시 제 마음을 열게 해준 분이
'화성남양지점 홍태준 부지점장님' 이십니다.
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딸의 병간호로
장사를 그만두고 지쳐 있는 저에게
'기운 내세요. 좋아질 겁니다'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
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.

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.
살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거나
따뜻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.

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.
늘 건강하셔서 국민들에게
든든한 힘과 희망을 주세요.”

편지를 보내주신 남성은 고객님 감사합니다.
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따님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
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.